

'환경도서관'을 위한 제언

임지현

한양대 사학과 교수

문화의 날을 하루 앞두고 김대중 정부는 무려 90여 개에 달하는 문화진흥정책의 보따리를 풀었다. 그 중에는 공공도서관의 신설과 자료확충이라는 항목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사실 국회도서관을 제외하면 공공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집 근처에 있는 목동도서관을 꽤 자주 다니는 편이다. 영국 생활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에 친숙해진 탓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자기 생활의 한 축이 된 동네도서관에 대한 큰 아이의 불만은, 도서관이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근엄하다는 표현이 더 맞지도 모르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생님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도서관에는 모자열람실이 있는데, 이곳은 젊은 엄마와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열람실을 드나드는 연령층으로 보아 다소 번잡스럽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비치된 책들도 주로 여성잡지나 유아용 그림책들이란다. 그러기에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자 하는 여타 주민들과 격리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음 직하다. 그런데 딸애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사서들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는 것이다. 딸애의 눈에도 조금 너무 한다 싶은 모양이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고 따라서 정숙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의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학문연구를 위한 대학의 도서관이나 전문 도서관과 운영원칙이 달라야 한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다.

모자열람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유아들이 책과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이며, 다소 산만해도 괜찮다. 어느 면에서는 열람실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 책이 흩어져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영재를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열심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책과 친해지는 공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책을 접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책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벗이 된다. 어린이들의 뇌리에 도서관의 풍경이 딱딱한 것으로만 남을 때, 그것은 더이상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기를 그친다.

어려서부터 동네의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내키는 대로 꺼내본 경험이 없는 우리 사회의 독서 문화는 권위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대학에서는 교수와 선배들이 권하는 대로, 성인이 되어서는 각종 매체의 베스트셀러 기사가 권하는 대로 책을 읽는 독서문화는 이미 권력에 종속된 문화다. 독서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문화의 담론이 아니라 권력의 담론이다. 권력에 종속된 독서에서 자율적 사고나 사고의 창조적 전복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권위적 독서문화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입시전쟁을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들의 피난처이면 충분할 뿐이다. 한국의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는 이처럼 물고 물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수십년간 형성돼온 이런 악순환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은 공공도서관이 잠자는 책들의 죽은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운영과 기획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 사서가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돕는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이라고 공공도서관을 새롭게 정의내려야 한다. 프랑스의 '환경박물관'(Eco-museum) 운동처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일상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자기가치화의 공간인 '환경도서관'(Eco-library)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 아닐까? ❖

특집/출판시장 전면개방, 그 이후	2	출판시장 전면개방으로 지각변동 예고 전자출판물 시장 타격 예상, 컴퓨터·아동서도 변화
	4	빛장 열린 출판시장에 외국지사들 '정중동' 12개 한국지사 외서수입 공급역할로 국내진출 발판
	6	냉혹한 경쟁시대 맞은 국내 유통업계
출판시론	7	새로운 학교문화, 책으로 싹틔우자 - 김득순
초점	8	납본제 폐지로 출판통계 증발 우려 규제개혁위 폐지방침에 출판계 엇갈린 반응
소식	9	서울시, 공공도서관 구조조정 단행
출판화제	10	아주 특별한 언어로 읽는 인류 문헌유산
	11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소설바람
	12	세계 대공황의 해일, 그 예측과 대안 - 허연
리포트	13	일본에서 열린 <현대한국 복디자인전>을 다녀와서 - 정병규
출판가	14	서점가 '만산홍업'으로 물들이는 띠지들
	15	틈새 광고의 효과 노린 '홍보신문'
기획취재	16	수면 위로 떠오른 사전주문제
연재 에세이	18	순수 주객이 되어 '나의 고전'으로 - 이광주 유연한 시공을 펼치는 고전과의 놀이 <마지막회>
만화	19	책과 오과장 - 박시백
세계의 출판	20	세계를 겨냥한 무서운 아이, 아마존·외 - 오애리/백원근
해외서점 탐방	22	프랑스 재고도서 전문점 '막시 리브르'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3	인터넷 헌책방 '비블리오 파인드' 사이트 - 허명구
표지	24	현실과 환영의 향연 고영훈 전시회 <술거를 위하여> 이모저모
서평	26	조동걸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 박용욱 우실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 주강현
	27	김성희 <한국 현대회국 연구> - 이영미 이병천, 김군 위음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이제광
	28	김종업 <연대와 열광> - 양영진 휘트로 <시간의 문화사> - 이희진
	29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 임문영 브링클리 <미국인의 역사> - 이주영
이 책 그 사람	30	<명창 임방울> 퍼낸 천이두씨 <사랑을 읽는다> 퍼낸 함인희씨
	31	<지리산에 가련다> 퍼낸 김양식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㉔ 황규태 <원풍경>